

다산포럼



**김재민**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챗GPT를 놓고 '하이테크 표절'이라 규정했다. 이런 진단은 향후 논의의 방향을 '표절'의 문제로 몰아갔다. 솔직히 말해 챗GPT의 등장을 신기술 환경에서 '글쓰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육에서 글쓰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논하는 계기로 삼아야 했다. 또한 '읽기와 쓰기'를 중심 활동으로 삼는 인문학의 현재 위상을 살피고 혹 필요하다면 어떻게 재 정의되어야 할지 논해야 했다.

오늘날 인문학은 두 개의 구별되는 활동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정체성을 잃은 것 같다. 요컨대 우리가 현행 대학 제도에 익숙한 나머지, 그걸 기본값으로 삼으면서 '학문 연구'와 '교육'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학문 연구는 전문가의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교육은 연구와 별개로 이해할 수 있다. 배우는 쪽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전문가가 되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 있다. 모든 미래 세대에 꼭 필요

확장된 문해력과 인문학의 재정의

요한 '핵심 공통 역량' 교육이다. 이는 그동안 '교양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희석된 전공' 취급 당해왔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특히 오늘날에는 정확하지 않다. 요컨대 오늘날 '교양 대 전공'의 이분법은 부적합하고 나아가 해롭다.

나는 대안으로 '공통 역량과 전문 역량'의 구별을 제안한다. 전문 역량 교육은 연구와 교육이 구별되지 않는 전문 교육 과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 과정 이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전까지의 교육은 '공통 역량'에 집중해야 하며, 인문학은 그런 교육 활동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이원대 인문학은 '학문 연구' 분류 단위가 아니라 '교육' 단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흔히 언어를 도구 과목이라 부른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구'라고 한다. 가령, 영어로 쓰인 모든 것을 활용하려면 영어를 익혀야 한다. 도구로서의 언어의 특징이다. 오늘날 누구나 갖춰야 할 핵심 공통 역량은 확장된 언어 능력이다.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전통 인문학은 확장된 언어라는 핵심을 놓쳤지만, 이제 확장된 언어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

과거에 인문학이 담당했던 언어 능력, 즉 문해력(literacy)은 삶과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다. 과거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같은 자연어가 그런 활동의 핵심에 있었다. 문제는 시대가 변해 자연어가 다가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

는 자연어 안에 모든 지식과 기술이 오롯이 담겨 있었지만, 오늘날의 언어는 자연어 외에도 수학, 자연과학, 기술, 예술, 디지털 등으로 확장했다. 따라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 확장된 언어를 다루는 능력, 즉 확장된 문해력이 필요해졌다. 인문학이 한동안 보여온 무력함과 공허함은 인문학의 핵심인 언어를 놓쳤다는 데서 왔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확장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 정의하고 나면, 사실상 중등교육까지 대부분 교과목이 담당했던 교육이 '확장된 인문학 교육' 혹은 '확장된 언어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인문학은 교육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학습 역량이 다르기에, 대학 초년까지는 이런 핵심 공통 역량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 접근은 인문학을 오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파생 효과도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학문 후속세대가 더 이상 인문학 대학원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말하자면, 학문 연구의 대가 끊김으로써 교육 인력도 함께 사라지리라는 전망과 관련된다. 그러나 확장된 인문학은 많은 교수자 수요를 창출하며, 또한 교육과정 운용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인문학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 개선을 시작으로 연구 지원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NGO 칼럼

세상에 능숙한 부모는 없다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광주아동관리센터장

"아들 둘 키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12세, 9세 두 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듣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힘들지 않다. 다둥이 아빠에 비하면 난 양손에 아이 둘을 끼고 갈 수 있기에 비교적 살만하다. 협력이 필요할 땐, 내가 큰 아들을 챙기고 아내가 작은아들을 맡아 각개전투도 가능하다. 더욱이 나 역시 아들로 살아왔기에 아들의 인지 구조나 특성 역시 잘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부모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는 가능하다.

세상에 처음부터 능숙한 부모는 없다. 대다수의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서 처음으로 부모가 된다. 정규 교과 과정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직접 강의를 찾아 듣거나,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솔직히 오래전 내 부모의 양육 방식을 떠올리면, 서로 힘들고 상처가 됐던 기억도 있어 아이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처음인 우리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 길을 아이와 나아가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에는 학교와 복지관, 학원과 같은 다양한 사회 기관과 지역사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선생님과 지도자, 친구, 멘토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아이가 따듯한 가정과 사회의 규칙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 역시 명확하고 건강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는 힘을 갖춰야 한다.

집을 짓는 과정에 설계가 필요하듯, 부모는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양육에는 '따뜻함'과 '구조화'라는 재료가 요구된다. 따뜻함이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도록 장기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며, 구조화는 아이에게 적절한 정보

를 제공해 스스로 규칙과 행동 기준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간혹 말을 하는데 아이가 한 번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 책을 읽고 있었거나, 놀이에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일부 양육자들은 이런 '단기적인 문제 상황' 앞에서 당황하거나 오히려 화를 낸다.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부모에게는 기회이자 과정이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아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아이가 부모의 지도에 잘 따를 때 칭찬함으로써 규칙을 따르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는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한 지지 기반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양육으로 지쳐있는 부모가 이런 과정을 침착하게 반복하기는 꽤 어렵다. 이 경우, 부모는 본인의 스트레스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역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아이를 키우는 독자들이 이 여정에 동참해 보길 제안해본다.

기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임채석**  
광주시교육청 사무관·행정학박사

내년 지방교육재정이 불안하고 위태롭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여파가 원인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3000억원 줄어들고, 그 중 교육분야 유·초·중등교육은 80조 9000억원에서 73조 7000억원으로 7조 1000억원 줄어든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 7000억원에서 68조 8000억원으로 6조 8000억원 줄었는데, 한마디로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역대 최대 감액으로 요약된다.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역대 최대 예산감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국가시책과 공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상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 체제의 근간이 된다.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근거해 안정적 재원 구조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늘어나는 재정 규모만큼이나 정부는 신규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들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자율권을 제한하고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신설은 교육세 부담 사용으로 유·초·중등교육에 집중적으로 쓰여 제약 할 교육재정이 나뉘며 기식 예산으로 변질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연동되고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교육재정교부금도 줄고, 많이 걷히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조세법률주의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자치재정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그리고 향후 국내의 재정 상황 여건이 녹록치 않다. 내년 예산은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교육자적으로 예산편성은 이어가겠지만 당장 내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예산편성을 못한 시도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현재의 교육재정교부금은 재정 여건에 민감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시급하다. '아랫줄 빼서 윗줄 피기'의 땀집식 처방은 안 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누리과정에서 아픈 경험을 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은 재정투자의 안정성에서 시작된다. 정부 시책사업은 정확한 근거와 소요 재정에 대한 객관적 추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인 재정 확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

도교육청에 묻지마식 예산편성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 유보통합, 돌봄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지방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재정 당국 등에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개편 요구가 있다. 내국세 연동 방식보다는 학생인구 감소와 재원 배분의 균형, 국가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초·중등교육 예산 축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고, 좀 더 과학적이고 설득 가능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한 재원 발굴 노력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세수 예측 실패는 예산 핑크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써야 할 예산이 적기에 쓰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 국가재정의 수요 예측이 날뻛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정부의 날뻛기식 예산 추계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통계, 주기적 측정, 세목별 추계 모형을 통해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교육재정 확보 규모 및 소요 재정 규모를 보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초·중등교육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社說

공항 이전 '3자 논의'...갈등 해소 시발점 되길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군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항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현실적인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을 포함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머리를 맞대게 됐다는 점에서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광주시가 지난 15일 합평군을 포함한 4자 회담 제의와 함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 이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이틀후 전남도가 합평군을 제외한 무안군과의 3자 회담을 제의했고 광주시가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간 만남 이후 끊임 시·도 실무협의체 가동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시 시도지사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서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자 회담으로 합평군은 일단 이전 후보지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합평으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국방부가 사전에 후보지로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어찌 합평군 주민들은 여론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는 군공항 유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무안군 수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취임후 골교 결사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해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3자 회담에 합의한 만큼 이전 명분을 가지고 성실성의껏 무안군 설득에 나서야 한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무안 이전은 2008년 무안 국제공항 개항 당시부터 지역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어렵사리 3자 회담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이뤄내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잇그제 광주 시청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광주의 현안인 달빛고속철도 관련 법을 정기 국회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에는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될 중요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km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로, 광주의 수련 사업 가운데 하나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별법은 역대 최다

인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을 결집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안에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조항을 두고 있어 사업 본격 추진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12월 8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시일이 촉박하다. 자칫 정치 현안이 묻혀 특별법안이 표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영남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반드시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해 영·호남 상생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며칠 전 강원도로 면회 가서 만난 아들에게 "밥 먹었니?"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정말 똑같이 물어보네"라며 놀라워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아침밥' 대신 '브런치'로 주말 아침·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말에는 '아침밥'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들어보니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자식 얼굴 보자마자 '밥 먹었니?'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식단을 바꿨다고 했다.

최근 쌀값이 20만 원에 밀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11월 1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에 4만 9820원을 기록했다. 80kg로 환산하면 19만 9280원이다. 10월 5일 21만 7552원(80kg)이던 쌀값은 한 달 만인 11월 5일 20만 1384원으로 내려앉더니 15일에는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전남 쌀은 더하다. 논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해남의 경우 18만 8000원선까지 내려앉았고 영암도 18만 원 선까지 폭락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80kg 한 가마당 20만

원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농민들의 허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언제쯤이면 쌀값 걱정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푸념이 울해도 들린다. 전남도가 부러부러 건의하면서 정부도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 번 내려간 쌀값이 20만 원대로 올라설 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농민들은 생산비를 감안하면 쌀값이 80kg들이한 가마에 24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밥 한 공기 가 쌀 100g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밥 한 공기

밥한 공기

에 300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였지만 언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식당에서는 '공깃밥=1000원' 공식도 깨지고 있다. 1500원을 적어놓은 메뉴판이 야박하게 보이기도 한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공깃밥=1000원 '국물'이 바뀐 건 인건비·가스비·전기료 등이 오른 영향이 큰 데 일부에서는 쌀값 때문이라는 오해도 들린다.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떨어지는 상황에서 '값값', '커피 한 잔 값'도 못되는 '밥 한 공기 300원'을 요구하는 농민들 심정은 어떨까.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본부 220-068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